

#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Literacy*

김성준(Sung-Jun Kim)\*

### 〈 목 차 〉

I. 서론	1.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와 인정과정
II.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이해와 활용현황	2. 개발과정
1.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이해	3. 교육과정
2. 한국의 정보활용교육과 교수매체	IV.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내용체제 및 적용방법
3. 미국의 정보활용교육과 교수매체	1. 내용체제
4. 일본의 정보활용교육과 교수매체	2. 적용방법 및 개발의의
III. 『도서관과 정보생활』 개발	V. 결론

### 초 록

정보활용교육은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11년에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로 발행된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개발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새로운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정보활용교육 방법과 교수매체 활용현황을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와 인정심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로 약 6년의 기간을 거쳐 개발된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개발과정, 교육과정, 내용체제,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활용교육

### ABSTRACT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s a important role of today's school libraries. S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and textbook is necessary to establish educational role of school libraries more firm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Literacy* published in 2011. For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nd instructional media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fter all, this study presented the textbook's development progress, curriculum, contents and method of application.

Keywords: School Library, Teacher Librarian, Curriculum, Textbook, Information Literacy

\* 2009-2010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육과정개발위원장, 전북 이리여고 사서교사(hakdoman@gmail.com)  
• 접수일: 2011년 8월 24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4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 I. 서론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의 교육방향이자, 입시중심의 수동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정보자료의 활용과 이를 통한 학습능력의 신장은 도서관 교육의 근본이념이며,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학교도서관은 정보활용교육의 장이자 주요 교수매체'로, 사서교사는 '정보활용교육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고, 그 방향은 정보활용교육을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라는 기본인프라 이외에도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체계화, 국가수준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반영, 사서교사의 교육적 전문성 강화와 같은 조건이 정비되어야 한다. 정보활용교육의 주요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학교도서관의 발전과정은 그동안 이러한 환경을 마련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도서관의 주요 역할로 정보활용교육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중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으로 형식화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과서가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수매체이며, 동시에 교과와 교직의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로 1996년에 『정보와 매체』, 그리고 2002년에 『정보와 도서관』이 개발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체계화하고 교과서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급용 교과서만 개발되었거나 현장 적용성이 부족하여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최근의 학교도서관 이론과 현장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정보활용교육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학계, 현장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전문단체의 공동노력으로 『도서관과 정보생활』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인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개발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의 정보활용교육과 교수매체 현황을 조사하여, 각 국가에서 사용되는 교수매체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와 인정과정을 살펴보고, 기초연구에서부터 약 6년의 개발기간을 거쳐 완성된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개발과정, 교육과정, 내용체제, 적용방법, 개발의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이해와 활용현황

### 1.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이해

학교도서관은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효과적인 정보의 이용자와 생산자로 교육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은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와 같은 교수매체가 필요하다.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도서관과 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내용(library skill)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은 1998년에 발행된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이다. 이 기준은 '학생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보활용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체화시켰다.<sup>1)</sup>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육모형, 즉,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지금까지 Irving의 9단계 모형, Kuhlthau의 ISP 모형, Stripling과 Pitts의 연구과정 모형 등 다수의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교수매체 전문가, 교육공학자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모형은 Eisenberg의 Big6 Skills 모형이라 할 수 있다.<sup>2)</sup> 이 모형은 <표 1>과 같이 정보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과제정의, 정보탐색전략, 정보탐색 및 접근, 정보이용, 정보종합, 정보평가의 6단계로 설정하고 있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3단계와 12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1> Big6 Skills 모형의 구성

3단계(Super 3)	6단계(Big 6)	12단계(Little 12)
시작 (Beginning)	과제정의	정보문제 규명, 정보요구 확인
	정보탐색전략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 결정, 정보원 평가와 우선순위 확인
실행 (Middle)	정보탐색 및 접근	지적·물리적인 정보탐색, 정보원내의 정보탐색
	정보이용	정보원내의 정보와 상호작용(읽기, 듣기, 보기),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추출
종료 (End)	정보종합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조직, 정보표현
	정보평가	결과물 평가(효과성), 정보과제 해결과정 평가(효율성)

1) AASL & AECT,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Chicago and London : ALA, 1998). 김병주는 이 기준을 '정보의 힘(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으로 번역하였다.

2) M. B. Eisenberg and R. E. Berkowitz, *Information Problem-Solving: the Big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Norwood, N.J. : Ablex, 1990), pp.5-9.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3호)

정보활용교육의 내용과 방법, 다시 말하면 정보활용교육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는 <표 1>과 같이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과제 설정부터 정보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분류, 목록, 도서관 자료활용, 독서법과 같은 기능이 주요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을 학생수준에 맞게 선정하고 조직한 내용 제공서인 동시에 해설서이며, 교수·학습과정을 이끌어가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상징체로서 의미를 지닌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본질적 기능으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체계화하고 조직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정보활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교수매체로서 본질적 기능을 한다. 아직까지도 교실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교수매체는 교과서이다.

둘째, 이상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상징적 기능으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학교도서관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교과서의 개념이 비교적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교과서는 교과와 교직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혹은 정보활용이라는 교과서의 개념이 부족하고 교직으로서 사서교사의 역사가 짧은 상황에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학교도서관 분야의 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직으로서 사서교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정보활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수매체가 필요하며, 교과서와 같은 교수매체의 활용은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그러나 교수매체의 개발과 활용방식은 각 국가의 교육제도,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 정보활용교육의 전개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개발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정보활용교육 현황과 이들 국가에서 활용하는 교수매체의 유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한국의 정보활용교육과 교수매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감이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란 명칭으

3) 김정호 등,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p.33.

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sup>4)</sup> 이 중에서 단위학교의 교육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즉 학교도서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은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등학교의 선택교육과정이다.

학교도서관 교육은 지난 2002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 4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도서관활용수업 강화'라는 세부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교육과정과의 연계 없이 독서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을 학교도서관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교육은 주로 시범사업, 단순사례, 교양 수준의 교육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등학교의 선택교육과정을 통해 정보활용교육을 전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가치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 부족하며, 사서교사를 포함한 단위학교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반영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sup>5)</sup>

결국 정보활용교육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교육은 아직까지도 국가수준 혹은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의 폭넓은 교육활동 속에서 교양적 성격으로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법에 따른 제도적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 교육을 반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두 차례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그 중 처음으로 개발된 교과서는 1996년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준도서로 발행된 『정보와 매체』이다.<sup>6)</sup> 이 교과서는 정보요구에서 정보평가에 이르는 정보활용과정을 바탕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술방식은 당시의 일반적인 교과서 기술방식과 동일하게 개념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록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용만 개발되어 적용대상이 제한되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보와 매체』의 내용체계는 <표 2>와 같다.

4) 교육과학기술부, 2009개정 교육과정, <<http://curri.mest.go.kr>> [인용 2010. 7. 15].

5) 이병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8권, 제1호(2007. 3), pp.100-101.

6) 김용철 등, 정보와 매체(서울 : 대한교과서, 1996).

〈표 2〉 「정보와 매체」의 내용체계

단원	내용	
	I.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	1. 왜 정보와 매체를 공부하는가 2. 정보 매체의 발달과 유통 3. 정보화 사회화 인간 생활
II. 정보 매체와 정보 접근	1. 정보 요구와 접근 3. 영상 정보 5. 체험 정보	2. 문헌 정보 4. 전자 통신 정보
III. 정보 매체와 정보 분석	1. 정보의 유용성과 분석 3. 영역별 정보분석	2. 과학적 정보 분석
IV. 정보 매체와 정보 적용	1. 정보의 창조와 표현 3. 학교 학습과 매체	2. 정보 표현과 논술 4.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관리
V. 정보 매체와 정보 평가	1. 정보 평가의 의미와 방법 3. 단계별 정보 평가	2. 정보 평가의 기준
VI. 정보 매체와 현대 생활	1. 정보 사회와 정보문화 3. 정보화와 우리의 자세	2. 정보 생활과 평생 교육

두 번째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인정 교과서로 발행된 「정보와 도서관」이다.<sup>7)</sup> 이 교과서는 기존의 「정보와 매체」와 달리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3책으로 발행되어, 학교급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 이 중 고등학교 「정보와 도서관」의 내용체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정보와 도서관(고등학교)의 내용체계

단원	내용	
	I.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	2. 나의 독서계획
5. 미래의 도서, 전자 책	4. 우리 집 꾸미기	6. 나의 생활 비용은 얼마일까(수학)
7. 우리집 가족 여행	8. 독서 신문 만들기	10. 친구와 함께 하는 봉사 활동
9. 내가 살고 싶은 곳은(사회)	10. 친구와 함께 하는 봉사 활동	12. 사이버 책꽂이
11. 올바른 에너지 사용	12. 사이버 책꽂이	14. 사이버 미술관에서(미술)
13. 사이버 독서 토론으로 만나는 문학가	14. 사이버 미술관에서(미술)	16. 우리 학교 축제
15. 우리 나라의 전통 민속놀이	16. 우리 학교 축제	18. 우리 가족 기상 통보관
17. 판소리와 오페라(음악)	18. 우리 가족 기상 통보관	20. 멸종 위기의 생물보호(과학)
19. 백일장을 준비하며	20. 멸종 위기의 생물보호(과학)	22. 우리 학급 잡지 만들기
21. 도서관 주최 정보 사냥 대회	22. 우리 학급 잡지 만들기	24. 응급 처치법(기술가정)
23. 미래의 자동차	24. 응급 처치법(기술가정)	26. 우리 어머니 떡 가게에서
25. 환경 독서 박람회	26. 우리 어머니 떡 가게에서	
27. 나의 취미 생활		

이 교과서는 개념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기술방식 대신에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를 정보활용과정에 따라 실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7) 김용철 등, 정보와 도서관(서울 : 대한교과서, 2002).

1단원인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내용은 일상생활 및 교과와 관련된 학습 주제를 대표적인 정보활용 모형인 Big6 skills의 6단계 즉, 정보과제 정하기, 정보요구 파악하기, 정보탐색하기, 정보분석하기, 정보종합하고 표현하기, 정보이용과정 돌아보기의 순서에 따라 실습하는 방식이다. 즉, 정보활용능력을 일상생활 및 학습과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을 교과의 교육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교과서는 사서교사의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되는 2002년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다. 첫째, 무엇보다 학교도서관 교육상황상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반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정보활용교육 교과서가 현장에서 채택되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이며, 지금까지도 여전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보활용과정에 따라 실습하는 방식은 기존의 개념설명 방식에 비해 파격적이지만, 지도교사와 학습자에게는 동일한 학습방법을 반복시키기 때문에 학습과정은 불가피하게 단조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즉, 교과서가 학습과정과 방법을 상당부분 결정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제한시키는 측면이 있다.

셋째, 「정보와 도서관」은 Big6 skills 모형을 기본체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본격적인 배치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고, Big6 skills 모형을 포함한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이론은 그 이후에 서야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즉, 사서교사들은 이 교과서의 기본이론에 대해 양성과정에서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였으며, 이 때문에 교과서 체제와 내용을 생소하게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도교사에게 익숙하지 않는 교과서가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넷째, 지금까지도 학교도서관 현장의 교육방식은 주로 도서관이용교육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도서관과 자료의 활용방법에 대해 학기 초에 1-2차시 정도로 짧게 진행된다. 그 이유는 수업시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와 도서관」은 도서관이용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의 수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교육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하였다.

### 3. 미국의 정보활용교육과 교수매체

미국의 학교도서관 교육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교과수업을 전개하는 자원기반학습, 도서관 이용교육,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을 통한 정보활용교육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은 1998년에 발행된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부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을 통한 정보활용교육을 학교도서관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은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을 근거로 주(州)의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반영하거나, 주(州)의 학교도서관 전문단체가 제시한 기준을 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보활용교육과

정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도서관(library)’ 혹은 ‘정보활용(information skill)’이란 명칭으로 주(州)의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기준과 동일하게 주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수업을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고, 학생수준에 따라 리터리시(literacy), 독서교육, 도서관이용교육과 같은 세부내용을 반영하고 있다.<sup>8)</sup>

이처럼 미국에서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수업이 정보활용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학교도서관 기준인 『21세기 학습자기준(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에서 보다 분명해진다.<sup>9)</sup>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미래 학습자를 양성한다는 교육철학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교육신념과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기준을 기능(skills), 성향(disposition), 책임감(responsibilities), 자기평가 전략(self-assessment strategies)의 요소로 구분하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0)</sup> 결과적으로 이 기준은 협력수업의 방식으로 정보활용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학교도서관협회는 이 기준의 적용사례에 해당하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을 통해 협력수업의 구체적인 전개방법을 <표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1)</sup>

교수매체 활용측면에서 미국은 <표 4>와 같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공동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수업을 설계, 진행, 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같은 공통된 교수매체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협력수업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상황에 적합한 교수매체를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직접 개발하거나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력수업뿐만 아니라 국어(language arts)와 사회 교과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경우와 사서교사의 독립적인 도서관이용교육을 위해서 민간회사에서 발행한 교수매체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수매체는 주(州)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교도서관의 교육내용을 학교급 또는 학생수준에 따라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DC, 청구기호, 정보검색, 목록활용, 도서관자료의 활용법과 같은 전통적인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12)</sup>

8) 이병기, 전제논문, pp.446-452.

9)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http://www.ala.org> [cited 2011. 6. 15].

10) 이병기,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조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9), pp.204-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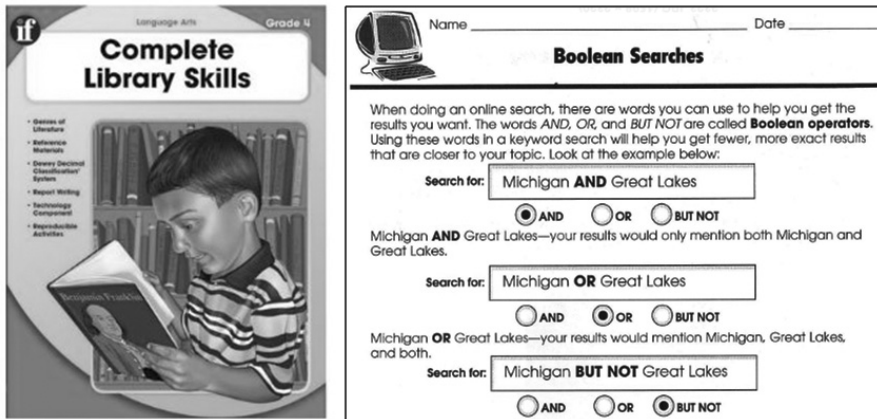
11)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in Action*(Chicago : AASL, 2009), pp.70-71. 재인용 : 이병기,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매체와 교수매체론(고양 : 조은글터, 2010), pp.410-411.

12) Arden Bruce, *Complete Library Skills Activities Program*(New York :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1990). 이 자료는 도서관이용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에 해당하는 교수매체이다.



〈표 4〉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 사례

대상: 초등학교 1학년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
<p>〈도서관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고정식 스키줄</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탄력적 스키줄</li> <li><input type="checkbox"/> 혼합형 스키줄</li> <li><input type="checkbox"/> 개별화 수업</li> <li><input type="checkbox"/> 독자적 수업</li> <li><input type="checkbox"/> 단원별 1차시 수업</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원별 다수 차시 수업</li> </ul> <p>〈협력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없음</li> <li><input type="checkbox"/> 제한적</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li> <li><input type="checkbox"/> 강함</li> </ul> <p>〈교과 단원〉 근중탐구</p> <p>〈소요 시간〉 30-60분 단위의 5차시</p>	<p>기준 ③ :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윤리적,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p> <p>〈기능 지표〉</p> <p>3.1.1 새롭게 이해한 부분을 공유하고, 학습 자체에 대해 반성해 봄으로써 탐구과정을 완결 짓는다.</p> <p>3.1.3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기, 쓰기 기능을 적용한다.</p> <p>3.1.4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조직, 표현하는데 있어 정보기술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p>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해 간단한 평가 척도표를 활용한다.</li> <li>- 핵심 아이디어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예술적 요소, 음악, 행동, 구술, 기술 등)을 활용하고 구술 및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해설적 텍스트, 시, 팟캐스트 등)을 적용한다.</li> <li>- 아이디어 조직과 전달을 위해 워드프로세서 및 드로잉 도구를 활용한다.</li> </ul> <p>〈성향 지표〉</p> <p>2.2.4 학습 결과물을 완성함으로써 개인적인 생산성을 보여준다.</p> <p>〈책임감 지표〉</p> <p>1.3.4 학습 공동체내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p> <p>〈자기평가 전략 지표〉</p> <p>1.4.2 자신의 탐구과정에 대해서 교사 및 동료 학생과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받는다.</p>
<p>〈시나리오〉</p> <p>1학년 학생들은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해서 학교 놀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상한 곤충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담당교사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벌레를 잡아 병속에 넣어 두기 위해서, 벌레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3명 정도의 자원봉사자 학생을 구한다. 또한, 담당교사는 3인 1조 활동을 전개할 때, 사서교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다. 사서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도서관자료를 브라우징 한다. 또한,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근 대학교의 곤충학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벌레를 잡아먹는 곤충에 대해 질의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곤충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서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의 벌레에 관한 정보 수집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학교 내 CCTV로 방영하기 위해 2분짜리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정보자료를 담당교사에게 제공한다. 또한, 사서교사는 3인 1조 단위로 학생들의 비디오 촬영 스크립트 작성, 리허설, 녹화하기 전에 예상 결과물에 대한 비평 등의 활동에 대해 조언해 준다. 일부 학생들이 교실에서 과학 관련 활동을 전개할 때,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으로 보내서 학습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p> <p>〈지역 혹은 주교육부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년 과학교과: 학생들은 환경을 이루는 대상, 유기체, 사건, 장소 혹은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li> <li>• 1학년 국어교과: 학생들은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등의 6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하고, 대답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li> <li>• 1학년 국어교사: 학생들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논리적 순서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li> <li>• 1학년 기술교과: 학생들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li> </ul> <p>〈수업 개요〉</p> <p>1학년 학생들은 이상한 모양의 곤충을 확인하고 이 곤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 결과물을 학급 동료 학생 및 학교 전체에 전달해야 하는 소형 탐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학생 탐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결과물(표현물)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p>	<p>〈이하 생략〉</p>



〈그림 1〉 미국의 도서관이용교육 교수매체 사례

〈그림 1〉의 *Complete Library Skills*는 미국의 민간출판사에서 발행한 도서관이용교육,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 형식의 교수매체이다. 이 자료는 교과교사 혹은 사서교사가 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면서 학습활동지(worksheet)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분철이 가능하다.<sup>13)</sup> 이러한 자료는 지도교사가 별도의 교수매체를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sup>14)</sup>

#### 4. 일본의 정보활용교육과 교수매체

일본의 정보활용교육 현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일본은 문부성의 고시에 따라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일본에서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학습지도요령’은 1947년부터 지속적인 개정과정을 거쳤고, 1998년에는 ‘신학습지도요령’이란 명칭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총설,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과정의 편성, 각 교과 및 특별활동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의 총설부분에 ‘컴퓨터 등의 교재·교구 활용’과 ‘학교도서관의 활용’이란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국어와 사회와 같은 각 교과목의 학습지도 영역에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학습방법 등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즉, 비록 선언적인 수준이지만 일본에서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의 교육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 이를

13) Linda Turrell, *Complete Library Skills - grade 3*(Columbus, Ohio : Frank Schffer Publishing, 2004). 이 자료는 학생용 학습활동지 성격의 교수매체이며, 학생수준(학년별)에 따라 여러 권으로 개발되어 있다.  
 14) 미국학교도서관협회(AASL)에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수매체 활용현황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협회에서는 『21세기 학습자 기준』을 정보활용교육의 표준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다만 일부 학교구(school district)에서는 국어(language arts) 또는 사회(social studies) 교과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학교구 또는 주에서 인정한 교과서(인정도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2011. 6. 2).

통해 각 교과와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 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보다 우리나라의 재량활동과 유사한 ‘총합적 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정보활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sup>15)</sup>

일본의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全國學校図書館協議會)는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2004년에 <표 5>와 같이 ‘정보·매체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지도 체계표’를 발표하였다. 이 내용체계는 학교급에 따라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되며, 소학교는 다시 저, 중, 고로 나누어 학습자 수준을 총 5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학습내용은 학습과 정보매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매체의 사용법, 정보활용 방법, 학습결과 정리방법의 4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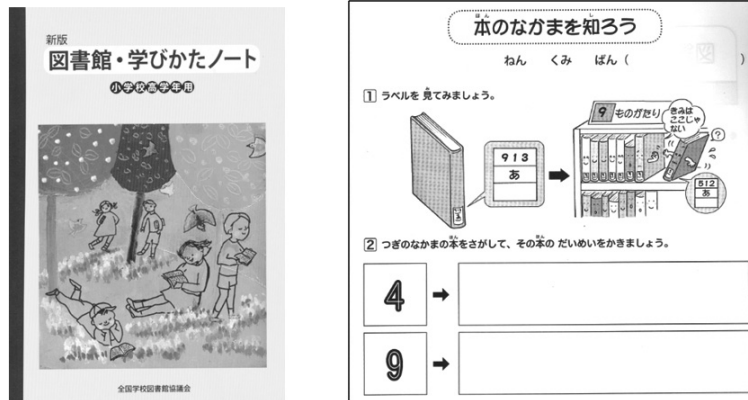
<표 5> 정보·매체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지도 체계표(고등학교)

구분	1. 학습과 정보·매체	2. 학습에 도움이 되는 매체의 사용방법	3. 정보활용 방법	4. 학습결과의 정리방법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의 의미를 생각한다.</li> <li>- 학습이란 무엇인가</li> <li>○ 정보사회와 학습방법을 생각한다.</li> <li>- 현대사회와 정보·매체</li> <li>- 정보매체의 종류와 특성</li> <li>○ 도서관의 기능을 안다.</li> <li>- 학교도서관</li> <li>- 공공도서관</li> <li>- 네트워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을 이용한다.</li> <li>- 분류의 조직방법</li> <li>- 배가의 조직방법</li> <li>- 레퍼런스 서비스</li> <li>○ 각종 시설을 이용한다.</li> <li>- 박물관</li> <li>- 자료관</li> <li>- 미술관</li> <li>- 행정기관</li> <li>- 기업</li> <li>- 기타시설</li> <li>○ 효과적으로 매체를 이용한다.</li> <li>- 신문, 잡지</li> <li>- 파일자료</li> <li>- 시청각매체</li> <li>- 전자매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를 수집한다.</li> <li>- 각종 매체의 활용</li> <li>- 인적정보원의 활용</li> <li>- 조사, 실험, 체험 등의 정보입수</li> <li>○ 효과적으로 기록한다.</li> <li>- 노트작성법</li> <li>- 카드작성법</li> <li>- 오림자료, 파일자료 작성법</li> <li>- AV기기 등을 활용한 기록방법</li> <li>- 컴퓨터를 활용한 기록방법</li> <li>○ 정보를 평가한다.</li> <li>- 정보원의 평가</li> <li>- 목적에 따른 정보의 비교, 평가</li> <li>○ 정보의 취급방법을 안다.</li> <li>- 인터넷</li> <li>- 저작권</li> <li>- 정보윤리</li> <li>- 개인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결과를 정리한다.</li> <li>- 평가한 정보의 정리</li> <li>- 자신의 생각 정리</li> <li>- 목적에 따른 기록의 정리방법</li> <li>- 자료 리스트</li> <li>○ 정리한 내용을 발표한다.</li> <li>- 보고서에 의한 발표</li> <li>- 구두 발표</li> <li>- 전시, 게시에 의한 발표</li> <li>- 실연에 의한 발표</li> <li>- 사진, AV기기에 의한 발표</li> <li>- 컴퓨터를 사용한 발표</li> <li>○ 학습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li> <li>- 조사, 연구방법 및 과정</li> <li>- 성과의 평가</li> <li>- 상호평가</li> </ul>

그리고 전국학교도서관협회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04년부터 기관지인 『學校図書館』에 학습활동지를 연재하였고, 그 결과를 모아 2007년에 단행본 형태의 교육자료를 발행하였다. 이 자료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발행되었는데, 교사용은 학교도서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도서관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좌측에는 교육대상, 교육과정과 연계된 관련교과, 수업목적, 수업활동, 전개순서, 도움말이 제시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좌측의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활동지가 수록되어 있다.<sup>17)</sup> 학

15) 이병기,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5, 6), pp.98-100.  
 16) 全國學校図書館協議會, 學校図書館 學びかた指導のワークシート(東京: 全國學校図書館協議會, 2007), pp.108-109.

생용 자료는 학생들이 직접 정보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노트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 예시는 <그림 2>와 같다.<sup>18)</sup>



<그림 2> 일본의 학교도서관 교수매체 예시

종합하면 일본은 학교도서관 전문단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교육내용의 구분방식은 다르지만 전통적인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과 정보활용과정을 종합하여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였으며, 교수매체는 교육상황과 수업시간 확보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서가 아닌 학습활동지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매체에 수록된 학습활동은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성은 비교적 우수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Ⅲ. 「도서관과 정보생활」 개발

#### 1.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와 인정과정

미국의 모델과 같이 정보활용교육은 각 교과의 교육내용과 연계되어 협력수업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활용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다양한 주제분야에 정보활용능력을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능

17) 상계서.

18) 全國學校図書館協議會, 『図書館・学びかたノート』編集委員会, 図書館・学びかたノート(東京: 全國學校図書館協議會, 2008).

동적으로 해결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전형적인 교과서보다 교과목의 교육내용과 연계된 교수매체를 직접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협력수업의 방식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고, 현장 교육에서 교과서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과서와 같은 표준적인 교수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우리상황에서 정보활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과 정보생활』과 같은 교과서 형태의 교수매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발행유형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교과용도서예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적·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과서 유형을 국정, 검정, 인정으로 나누고 있다. 각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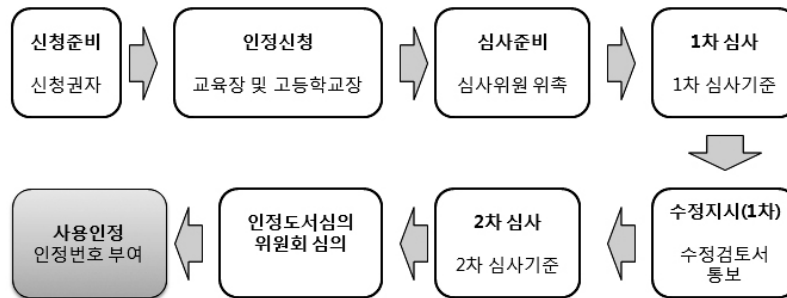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이다. 따라서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즉, 국정도서는 편찬계획에서부터 발행과 공급까지 국가가 관장하는 발행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등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특수학교용 교과서 등이 포함된다.

검정이란 교과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 및 판정하는 과정으로, 검정도서는 국정 이외의 교과서 중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도서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나 민간회사가 출판한 도서가 교과서로 적합한지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심사하여, 합격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교과서가 검정교과서에 해당한다.

인정도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이다. 즉, 국가가 주관하여 개발하는 국정 및 검정교과서로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정도서는 민간이 제작한 도서에 대해 국가 혹은 지역교육청이 교과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정하고, 이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인정도서에는 초·중등학교의 재량활동, 고등학교의 교양교과 교재, 실업고등학교의 전문교재,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용 교재,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재 등이 포함된다.

19) 법제처, 교과용도서예규정, <<http://www.moleg.go.kr>> [인용 2011. 6. 30]. : 김재복,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제26권, 제2호(2006. 8), pp.23-24.

비록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초·중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발행유형 중 인정교과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정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는 해당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인정도서로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에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국 16개의 시·도교육청중 하나의 교육청을 선정하여 인정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정도서의 신청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교과용도서예관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인정도서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정도서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sup>20)</sup>



<그림 3> 인정도서 업무처리 과정

우선, 개인 혹은 발행사에서 인정도서를 집필하고 심사과정을 준비한다. 이후 인정도서를 사용할 학교장은 규정된 서류를 준비하여 인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인정신청을 한다. 교육청은 인정을 신청한 도서에 대해 총 2회의 심사를 거치는데, 1차 심사에는 5-9명, 2차 심사에는 3-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차 심사는 주로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2차 심사는 주로 교과서로서의 체제와 표현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인정도서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정번호를 부여받고, 이후 현장에서 인정도서로 선정되어 사용된다.

## 2. 개발과정

2002년에 『정보와 도서관』이 개발된 지 약 10년이 지났고, 그 동안 약 700여명의 사서교사가 현장에 배치되었다. 특히, 국내외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정보활용교육을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2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0 인정도서업무처리지침, <<http://www.sen.go.kr>> [인용 2011. 6. 1].

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활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학교도서관 상황에 알맞은 새로운 정보활용 교육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과서는 단순히 가르칠 내용을 나열한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육목적, 내용선정, 내용의 조직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표 6>과 같이 기초연구, 교육과정 개발, 집필, 인정 심사, 발행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고, 총 6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

<표 6> 개발경과

일정	내용
2005 - 2007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연구 - 이병기,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제1호(2005), pp.45-74. - 이병기,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5), pp.85-105. - 이병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pp.443-462.
2007	교육과정 개발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2008.12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정책사업 선정 :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개발
2009.3	집필진 선정 : 총 20명(교수 2명, 사서교사 18명) 초등학교 1-3학년 : 4명, 초등학교 4-6년 : 4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 7명
2009.3 - 2010.3	교과서 집필 : 기술방법, 내용요소 배열, 계열화, 학습활동 설정
2009.11	출판사 선정 : 미래엔컬처(구 대한교과서)
2009.12	교과서 초안 검토 - 초안 검토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전국 사서교사 200명 - 학교급별 전문검토진 섭외 및 검토 : 초등학교 4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3명 사서교사 검토
2010.8	인정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0.9 - 2011.1	인정심사 : 1차 심사 및 2차 심사 통과
2011.2	교과서 인쇄 및 발행
2011.3	전국 사서교사 및 관련단체 배포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로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부 학교도서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기존방식 대신에 학교도서관 전문단체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우리나라 사서교사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사서교사는 개발될 교과서를 사용할 주체이기 때문에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현장요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고, 이는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인 현장 적용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둘째, 기존 교과서인 『정보와 매체』와 『정보와 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개발된 교과서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새로운 이론과 교육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을 주기로 개정되어야 하지만 일부 연구자가 이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전문단체의 사업으로 교과서가 개발된다면 전문단체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셋째, 국어와 사회 교과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과서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로 인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경우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부족하고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서관과 정보생활』 개발비용의 대부분은 한국학교도서관협회가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학교도서관 연구자, 사서교사, 전문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및 조직한 계획이며,<sup>21)</sup>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을 구체화한 교수매체이다. 즉,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과목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교과는 국가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반면에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교과는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기관은 우리나라 도서관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는 지난 2007년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위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성격, 교과목의 목표, 내용체계, 교수·학습방법, 평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sup>22)</sup> 즉, 이 교육과정은 학교도서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화시킨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과로,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교과이자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기본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교과목의 목표는 정보활용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설정, 탐색전략 수립, 접근, 분석, 해석, 평가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표 7>과 같다.

21)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인용 2010. 6. 5].

22)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pp.13-22.



〈표 7〉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의 목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정보과제를 설정하고, 정보탐색전략을 수립하여 정보에 접근하며, 정보의 내용을 분석, 해석, 평가하고, 정보를 새롭게 조직, 창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표현 전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습이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정보요구와 정보과제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② 자신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③ 문제해결을 위해 탐색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 해석, 종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④ 분석, 해석, 종합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문제해결에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로 표현, 전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⑤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스스로 평가해 보고, 향후 자신의 정보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셋째, 내용체계는 도서관과 정보활용, 정보탐색과 접근, 정보분석과 해석, 정보종합과 표현,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학교급에 따라 영역별로 2~5개의 세부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체계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체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넷째, 교수·학습방법은 사서교사가 정보활용능력 부분을 담당하고, 교과교사가 교과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도하는 협력수업 방식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반 교과와 달리 정보제시·안내형, 정보탐색·정리형, 정보분석·해석형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모형이 적용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 IV.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내용체계 및 적용방법

### 1. 내용체계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에 따라 약 2년 동안의 집필기간의 거쳐, 초등학교(1·2·3학년용, 4·5·6학년용),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개발되었고, 이후 4권의 교과서는 모두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정심사를 통과하였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내용체계는 교육과정에 따라 도서관과 정보생활, 정보탐색과 접근, 정보분석과 해석, 정보종합과 표현,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5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단원명칭과 내용구성은 해당 학교급의 교과서 특성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표 8〉의 초등학교 1·2·3학년 교과서의 경우 도서관과 정보활용, 정보탐색과 접근에 해당하는 단원명칭은 각각 ‘도서관의 내 친구’, ‘책은 내 친구’, ‘정보야 놀자’, ‘즐겁고 신나는 독서 생활’, ‘다양한 독서

표현', '올바른 정보 생활'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각 단원의 세부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sup>23)</sup>

〈표 8〉 도서관과 정보생활(초등 1·2·3학년)의 내용체계

단원	내용	
	I. 도서관은 내 친구	1. 도서관은 보물 창고 3. 도서관 예절을 지켜요
II. 책은 내 친구	1. 책은 내 친구 3. 자료는 어떻게 나누어 있을까요?	2. 책을 살펴보아요
III. 정보야, 놀자	1. 어디에서 정보를 찾나요? 3. 정보야, 나랑 놀자	2.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IV. 즐겁고 신나는 독서 생활	1. 책을 올바르게 읽어요 3.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요	2.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V. 다양한 독서 표현	1. 말과 글로 표현해요 3. 몸짓으로 표현해요	2. 그림으로 표현해요
VI. 올바른 정보 생활	1. 함께 나누는 정보 생활 3.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해요	2. 저작권을 보호해요

특히, 초등학교 1·2·3학년 교과서는 정보생활과 독서공간으로써 학교도서관을 이해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표 8〉에 제시된 각 내용은 '이런 것을 배워요(학습목표)', '생각열기(사례나 일화)', '알아보아요(교육내용)', '함께하는 활동(학습활동)', '더 알아보아요(심화학습)' 순으로 기술되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습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조사하기, 붙임딱지(스티커) 붙이기, 책 만들기, 선으로 연결하기,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하기와 같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시켰다.

〈표 9〉 도서관과 정보생활(초등 4·5·6학년)의 내용체계


단원	내용	
	I. 평생 학습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1. 평생 학습 사회와 도서관 3. 독서 생활과 도서관
II. 도서관 자료의 활용	1. 도서관 자료의 정리 규칙 3. 영상 자료 활용하기	2. 인쇄 자료 활용하기 4. 전자 자료 활용하기
III. 정보 과제 해결 따라하기	1.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이해하기 3. 정보원 가려내기 5. 정보 표현하고 평가하기	2. 나만의 과제 만들기 4. 정보 읽고 정리하기
IV.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	1. 정보 과제 해결 과정 익히기 3. 생활 과제 해결에 적용하기	2. 학습 과제 해결에 적용하기
V.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 생활	1. 올바른 정보 활용하기 3. 정보 윤리 실천하기	2. 저작권 바로 알기

23)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1·2·3학년)도서관과 정보생활(서울 : 미래엔컬처그룹, 2011)


초등학교 4·5·6학년 교과서의 내용체계는 <표 9>와 같다.<sup>24)</sup> 이 교과서는 초등학교 1·2·3학년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3단원 ‘정보 과제 해결 따라 하기’부터 Big6 skills 모형의 정보활용과정 순서를 실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3단원을 통해 나만의 과제 만들기, 정보원 가려내기, 정보 읽고 정리하기, 정보 표현하고 평가하기의 기본적인 정보활용능력을 습득하고, 이후 4단원에서는 습득한 정보활용능력을 학습과제와 일상생활의 과제에 직접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다 심화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열성의 원리를 반영하였다.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체계는 <표 10>과 같고,<sup>25)</sup>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체계는 <표 11>과 같다.<sup>26)</sup>

<표 10> 도서관과 정보생활(중학교)의 내용체계

단원	내용		
	I. 도서관과 정보 생활	1. 학교생활과 도서관 3. 학교 도서관의 여러 가지 정보원	2. 우리 학교 도서관 탐방 4. 학교 도서관의 이용 예절
	II. 정보과제와 정보 탐색	1. 정보 과제 해결과 정보 생활 3. 정보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 탐색하기	2. 정보 과제 정하기와 정보 요구 파악하기 4. 정보 탐색 과정의 종합적 이해
	III. 정보 분석과 이해	1. 정보 분석과 이해의 개념 3. 영상 자료의 분석과 이해	2. 인쇄 자료의 분석과 이해 4. 전자 자료의 분석과 이해
	IV. 정보 종합과 표현	1. 정보 종합하기 3. 정보활동 평가하기	2. 정보 표현하기
	V. 미래의 정보생활	1. 평생 학습과 도서관 3.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2. 정보와 저작권

<표 11> 도서관과 정보생활(고등학교)의 내용체계

단원	내용		
	I. 도서관과 정보 생활	1. 정보 사회와 정보 활용 3. 지역 사회의 정보 환경	2. 학교 도서관 이용과 정보 활용
	II. 정보과제와 정보 탐색	1. 정보 과제 파악과 탐색 전략 수립 3. 탐색 자료의 평가와 관리	2. 매체별 정보 탐색
	III. 정보 분석과 이해	1. 정보 분석과 이해의 배경 3. 영상 자료와 시청	2. 인쇄 자료와 독서 4. 전자 자료와 브라우징
	IV. 정보 종합과 표현	1. 정보 종합과 표현의 이해 3. 말에 의한 정보 종합과 표현 5. 정보활동 평가	2. 글에 의한 정보 종합과 표현 4. 시각적 정보 종합과 표현
	V. 정보 윤리와 사회적 책임	1. 정보 윤리와 사회 3. 인터넷과 정보 윤리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24)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4·5·6학년)도서관과 정보생활(서울 : 미래엔컬처그룹, 2011).

25)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중학교)도서관과 정보생활(서울 : 미래엔컬처그룹, 2011).

26)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도서관과 정보생활(서울 : 미래엔컬처그룹, 2011).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는 학교도서관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오염, 진로탐색, 여행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제를 부록으로 수록하였고, 학생들이 인쇄자료, 영상자료, 전자자료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매체를 효과적으로 분석, 종합,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 2. 적용방법 및 개발의의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이다. 그러나 정보활용교육은 전통적인 도서관이용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교과 학습을 위해 도서관의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도서관활용수업의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교과내용과 정보활용과정을 결합하여 협력수업의 형태로도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반영정도에 따라 정규교과로 운영될 수도 있으며, 특정시간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도 전개될 수도 있다. 즉, 현장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전개하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교과서가 이상의 교육방식에 모두 완전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다음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등학교의 선택과목과 같은 정규수업으로 사서교사가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본적인 교수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사정상 정규수업으로 정보활용교육이 전개되기 어려운 경우, 교과서 내용을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면 도서관이용교육을 포함한 비정규적인 정보활용교육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지금까지 국내외서 연구된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최신이론이 반영된 교과서이며,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위해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Big6 Skills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과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교육상황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내용과 학습활동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제시된 학습내용을 교과수업에 알맞게 응용한다면 협력수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서교사가 교과서에 포함된 정보탐색 능력을 지도하고, 교과교사가 교과내용에 해당하는 특정 자료를 탐색하여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한다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수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아직까지 약 700여명의 사서교사만이 현장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인적자원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교과교사)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이들 담당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보다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는 전반적인 방향만 제시되었

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담당교사가 학교도서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이며, 이들이 학교도서관 교육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개발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문헌정보학은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러한 이용자교육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로 전개되었던 문헌정보학의 교육을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학문적 측면에서 문헌정보학의 교육내용, 대상, 방식을 보다 일반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기존의 『정보와 매체』와 『정보와 도서관』을 통해서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부 학교급용 교과서라는 적용대상의 한계와 정보활용과정의 반복적 연습이라는 기술체계의 문제를 보완한 교과서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현상황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교과서와 차별화 된다. 또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기존에 일부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간헐적으로 개발하였던 것과 달리, 학교도서관 전문단체가 중심이 되어 최초로 개발한 교과서로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V. 결 론

정보활용교육의 운영방법과 교수매체의 활용현황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을 바탕으로 각 주의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부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수업을 정보활용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각 교과과의 교육내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보활용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수업을 위해서는 교과서와 같은 공통적인 교수매체를 사용하기 보다는 수업상황에 알맞은 교수매체를 직접 개발하거나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 교육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며, 우리의 재량활동과 같은 수업시간을 통해 정보활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라는 전문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도서관의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였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모아 학습활동지 형태의 교수매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의 교육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

였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록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과 선택과목으로 정보활용교육이 실시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학교도서관 교육은 학교의 폭넓은 교육활동 속에서 교양적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같은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정보와 매체』, 그리고 2002년 『정보와 도서관』이 개발되었지만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적용대상의 한계, 기술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그동안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은 점차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 『도서관과 정보생활』이라는 새로운 정보활용교육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2005년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시작하여, 교육과정 개발, 집필, 심사과정 등 총 6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쳤고, 2011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정심사를 통과하였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학습자의 수준을 초등학교 1·2·3학년, 4·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7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표준적인 절차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재량활동과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도서관이용교육,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문헌정보학의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수준까지 일반화시켜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전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전문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발된 교과서로 향후 학교도서관 교과서의 지속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학교도서관 교육의 제도화 근거로,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교육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서관과 정보생활』이 국내의 표준적인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적용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수·학습과정의 효율성, 교육적 효과, 정보활용능력 신장의 기여도 등과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교과서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